

여름 산사 추억

백담사의 여름이야기



권영민 문학평론가 단국대 석좌교수

설악의 백담 계곡은 언제나 아름다다. 여름 산사의 정취를 이곳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은 다시 없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백담사에서 처음 만해 축전을 열던 해였다. 나는 백담사를 찾았다. 만해 한용운의 문학을 새롭게 평가하는 심포지엄에서 나도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

“평론이란 허망한 언어의 그물질이죠” “어쩌면 나 자신이 해 오고 있는 문학공부의 허점을 그대로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만 기가 죽었다.”



그림 · 강병호

적 성소(聖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었는가? 백담사 경내를 들어서면서 나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런데 이 스님은 내 말을 듣고는 크게 웃는다. “쓸데없는 공부에 매달려 계신 분이구먼. 문학평론이라...”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노스님은 그것을 허망한 그물질이라고 지적하신다. 내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 채셨는지 그 노스님이 내게 다시 한 마디를 더 하신다. “글이란 자기 혼이 담겨야 제 글이지요. 그런데 평론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는 것을 빌어다가 남의 작품 가지고 활가랄부 시시비비만 하지요. 그러니 허망할 밖에요. 옛날이야기가 있어요. 계곡의 깊은 못에 커다란 물고기가 간밤 폭포를 타고 오르면서 용이 되어 승천했지요. 그런데 거기 무어가

남아 있을 거라면서 사람들은 그 물속으로 그 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는 이미 승천했는데 그 물에 무어가 걸리겠습니까?”

노스님은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고는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나는 노스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나 자신이 해 오고 있는 문학공부의 허점을 그대로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만 기가 죽었다. 백담사 계곡의 물소리만 산중에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산등성이로 눈길을 돌렸다. 설악의 높은 봉우리에 안개구름이 띪 돌렸다. 설악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나는 마치 크게 한번 ‘할방’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노스님이 궁금했다. 일행 가운데 한분이 가만히 내게 알려준다. 설악산 신홍사의 회주이신 무산 조운승 스님이란다. 나는 또한번 화들짝 놀랐다. 큰스님의 이 첫 만남이 큰 인연이 되었다. 나는 매년 여름 백담사를 찾는다. 지금은 인제에서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정비되어 있지만 백담 계곡은 여전히 깊다. 거기 설악에 만해 한용운을 담은 큰스님이 지켜 계시고 만해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백담 계곡을 흘러넘친다.

“풀리지 않는 역사의恨...렌즈에 담아”

위안부 할머니 기록한 안세홍 사진전 ‘겹겹’

96년 사진작가 안세홍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한 잡지사의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촬영차 방문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을 다녀온 이후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 아니 마음이 쓰였다. 그리고 그는 나눔의 집을 다시 찾게 된다. 이번에는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허드렛일도 도와주고 할머니들의 말벗도 돼 주는 자원봉사자였다. 그렇게 3년 봉사 활동을 하며 그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가슴 속에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지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진작업은 역사의 진실 또 아픔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안세홍 작가가 이끄는 겹겹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미안마 수행센터에서 몇 달간 머무르며 수행하기도 했던 그는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의 ‘重重’에서 ‘겹겹’이라는 이름을 따왔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전과 강연회, 기록 등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안세홍 사진전 ‘겹겹-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종로구 류가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 작가가 2001년 이후부터 중국 흑룡강, 연변, 북경, 산둥반도 등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를 찍어온 작품 37점이 공개된다.

중국에 남겨진 할머니 모습 담아 역사적 진실 세상에 알리고자 8월 7일부터 종로구 류가헌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중국에 남겨진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이후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 깊게 패인 주름에서 사방에 널브러진 손때 묻은 물건에서 글썽이는 눈망울에서 할머니의 한 맺힌 가슴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은 그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수차례 중국행을 택해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겹겹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진전 <겹겹>은 올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니혼 살롱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니혼의 모회사인 미즈비시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도쿄 사진전만이 개최됐다. 이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게했다.

안 작가는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위안부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겹겹 사진전은 그런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 겹겹프로젝트는 일본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진전과 강연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9월 오사카, 10월 도쿄, 11월 니고야 등에서 전시가 계획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9월초 광주, 9월 말에는 대구 전시도 열릴 예정이다. 안 작가는 “필리핀 인도 동티모르 미안마 말레이시아 등에도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의 활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알리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20-201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안세홍 작가는 8월 7일부터 중국에 남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담은 사진전 ‘겹겹’을 연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Summer Lecture Series. Features a photo of Daewon Munjaehyun and text about the 77th Zen Master's lecture series.

Advertisement for the book 'Light and Sound' (빛과 소리) by Seoknim Jee. Includes a photo of the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Bulje Electronics (불제대전기업). Promotes energy-saving LED lighting products with various bulb typ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LED lighting products. Lists various LED bulb models and their specifications.